

지역 매 아리

교월동,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지난 7일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교월동 지역발전협의회(회장 홍종식)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신호),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이),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정재영, 이하 교월사모) 등 관계 사회단체가 연합,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각 단체 회원들은 직접 배추 500여포기와 각종 양념 등의 재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을 주축으로 정성껏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가 관내 경로당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가호호 방문, 전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재난대비 훈련 평가 우수

완주군이 행정안전부 2018 지역특성에 맞는 월별 재난대비 훈련 평가에서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행정안전부 훈련 우수기관 선정돼 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및 재난관리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도를 대표해 지난 10월 24일 완주산업단지내 (썬) 한농 공장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행정안전부, 전북도, 덕진소방서 등 20개 기관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발생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복합재난상황을 가정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재난 대응 현장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평가는 행정안전부 훈련민간전문가의 사전평가·현장평가·사후평가로 이뤄졌으며,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완주군은 이번 훈련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가정해 복합재난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훈련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주요현안 의회와 협의 해법 모색”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박준배 시장, 시정질문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김제시에서는 지난 7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이날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로운 민선7기를 맞이한 김제시와 제8대 김제시의회가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진심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달려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장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5명의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김복남 의원이 질문한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 임시 가설로 설치하는 2016년부터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관련법 저촉과 고압선으로 반영되지 못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진행중인 육교 재가설 공사의 조속 추진과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성산전망대 활용방안 질의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를 구성해서 전망대가 철거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등을 통해 성산공원이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사 및 농업협정과 지도업무 분리에 대해서는 농업 발전방안에 대해 향후 100년 비전을 세워서 열심히 일할 공무원을 인사에 발탁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밝히며 효율적인 조직 인력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영자(가선거구) 의원의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10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 사업관련 질의에 대해 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시 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및 부품 산업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소회를 밝히

고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이기도 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만금 방조제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여 국제협력유치 100만평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오상민 의원의 KTX 혁신역 설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대응 상황을 포함한 공간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KTX 혁신역 신설을 위해 전담인력 운영을 검토하는 등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김제시 동부권 관광산업 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모악산 캠핑파크, 자연휴양림 조성 등 지역내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악산 축제를 상생관광 문화축제로 확대 발전시키고, 김제관광활성화 용역을 통해 동부권에 소재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진우 의원이 질문한 수

상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및 풍력발전 단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향후 전문가 자문과 시민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와 중앙정부 지침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자 의원의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질의에 대해 다양한 유통활성화 시책으로 상품권 이용을 늘리고, 판매점과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느티나무와 백일홍의 식재 확대하는 등 시목과 시화의 상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벽골제 유료입장 재검토 필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일, 벽골제 관광지 유료화 이후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벽골제 대표관광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유료 입장에 대한 이용객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소양지역아동센터 희망드림 발표회 열어

완주군 소양지역아동센터(대표 이재연) 아동들이 나눔이 가득한 발표회를 열어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7일 소양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학부모와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희망드림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입장료로 라면을 받았다. 입장료로 받은 라면으로 이웃에게 기부하기 위한 것.

아동센터를 통해 나눔을 받은 아동들이 또 다시 나눔을 선사한 것으로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날 입장료로 받은 라면은 총 70박스(2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아이들은 수화공연을 비롯해 댄스, 플롯, 바이올린, 우쿠렐레,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윤경숙 소양지역아동센터장은 “라면 기부 발표회가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특별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방투자 우수지자체 선정

김제시 최희경 주무관, 산업부장관상 수상

내년도 국비 5% 가산 지원 받아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12회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지방투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담당공무원인 최희경 주무관(김제시청 투자유치과, 행정8급)이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과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아카데미는 투자유치 담당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변경된 제도와 보조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표창과 함께 국비 5% 추가 지원의 가산을 부여한다.

김제시는 2015년부터 연속 4년째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 성과 역시 전국 최고의 성적으로 2019년도에도 국비 5% 가산



김제시는 지난 6일 제12회 '지방투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최희경 주무관이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원을 받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4년 연속 선정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에 우수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제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 중에도 2018년도 한해 동안 국내의 유수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지정선산업단지는 7개 기업이

162,638.2m2(약49,198평) 분양계약 체결하여 1,320억을 투자하고 274명의 신규 고용 창출했으며, 개별 입지와 순동산업단지에는 4개 기업이 1,660억을 투자하고 769개의 고용창출을 이뤘다.

김제자유무역지역 또한 4개 업체가 입주하여 497억을 투자하고 524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토부 공공주택 공모 완주군 3년연속 선정

상관면 신리 일원 임대아파트 건설... 내년 사업추진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3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완주군은 2016년 소양면, 2017년 고신면에 이어 올해 상관면 공공주택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은 지난 8월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단순히 주거 목적을 위해 건립되는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주민과 지자체 LH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정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주군은 내년 초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국비 75억 LH 110억, 군비 23억 등 총 214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135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공급한다.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9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0년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착공, 2021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관면 주민들과 완주군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특색있고 활력 넘치는 마을정비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계획수립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분야별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사업내용에 내실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Maserati cars. Features a blue Maserati sports car, a photo of a man in a suit, and text in Korean: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